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내린 판단으로 틀린 것은? [07 행외(무) 24번]

- A. 일반법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법이며, 특별법은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B.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 한다.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를 적용한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C.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被用者)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56조 제1항),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사무’는 통속적으로 ‘일’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말한다.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이를 국가배상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E. ‘중대한 과실(중과실)’이란 사회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 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잡초가 무성한 곳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② 지방공무원 갑이 퇴근 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고의로 을을 폭행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 직원 갑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도중 구경나온 이웃 주민 을에게 중과실로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갑 이삿짐센터의 종업원 을이 공무원 병의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실수로 정을 다치게 한 경우, 정은 을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던 국가공무원 갑의 잘못으로 을 소유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 **정답** ④

해설

- (1) 제시문 A ~ E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자.
A - 일반법과 특별법의 정의 및 관계
B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C - 민법상 사용자 책임
D - 공무원의 직무상 국가 배상 책임
E - 중과실

(2)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선택지마다 제시문에서 근거가 되는 내용을 찾아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A ~ E는 법학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하지만 법학에 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수험생도 주어진 제시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판단을 내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면 된다.
- ① : (○) E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중과실이 인정된다.

② : (○) B의 전단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갑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된다.

③ : (○) D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갑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중과실로 을에게 신체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을은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 (×) C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정은 을이 아니라, 갑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⑤ : (○) B의 후단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 2. 다음은 국무회의 좌석배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국무위원이 전원 참석하였을 때 A와 B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은? [10 행외(선) 15번]

(가)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위원 15명

(나) 국무회의 좌석배치 규칙

가운데 의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국무총리석, 왼쪽에 기획재정부장관석을 배치하고 의장석 맞은편의 오른쪽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석, 왼쪽에 외교통상부장관석을 배치한 다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석의 오른쪽에 통일부장관석을, 외교통상부장관석의 왼쪽에 법무부장관석을 배치한다(오른쪽, 왼쪽은 의장석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의 좌석배치는 정부조직법 제00조에 규정된 각 부순으로 아래 <그림>에서의 순서와 방향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다) 정부조직법 제00조(행정각부)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수산식품부 10. 지식경제부 11. 보건복지가족부 12. 환경부 13. 노동부 14. 여성부 15. 국토해양부

의장석

B

A

A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외교통상부장관
4. 외교통상부장관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B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문 2. 정답 ⑤

해설

(나)의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정확히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나)의 첫 번째 문단의 규칙에서 국무총리 이후에는 정부조직법 순서와 동일하므로 (다)의 해당 번호로 표시하겠다. 오른쪽, 왼쪽은 의장석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좌석을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14	10	6	총리	의 장 석	1	7	11	15		
			13	9	4	2	3	5	8	12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5 5급(인) 22번]

조선시대 궁녀가 받는 보수에는 의전, 선반, 삭료 세 가지가 있었다. 『실록』에서 “봄, 가을에 궁녀에게 포화(布貨)를 내려주니, 이를 의전이라고 한다”라고 한 것처럼 ‘의전’은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는 옷값이다. ‘선반’은 궁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의미한다. ‘삭료’는 매달 주는 봉급으로 곡식과 반찬거리 등의 현물이 지급되었다. 궁녀들에게 삭료 이외에 의전과 선반도 주었다는 것은 월급 이외에도 옷값과 함께 근무 중의 식사까지 제공했다는 것으로, 지금의 개념으로 본다면 일종의 복리후생비까지 지급한 셈이다.

삭료는 쌀, 콩, 북어 세 가지 모두 지급되었는데 그 항목은 공상과 방자로 나뉘어 있었다. 공상은 궁녀들에게 지급되는 월급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상은 모든 궁녀에게 지급되었으나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온공상, 반공상, 반반공상 세 가지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었다. 공상 중 온공상은 쌀 7두 5승, 콩 6두 5승, 북어 2태 10미였다. 반공상은 쌀 5두 5승, 콩 3두 3승, 북어 1태 5미였고, 반반공상은 쌀 4두, 콩 1두 5승, 북어 13미였다.

방자는 궁녀들의 하녀적인 무수리를 쓸 수 있는 비용이었으며, 기본급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었다. 방자는 모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일부에게만 지급되었으므로, 일종의 직급수당 또는 직무수당인 셈이다. 방자는 온방자와 반방자 두 가지만 있었는데, 온방자는 매달 쌀 6두와 북어 1태였고 반방자는 온방자의 절반인 쌀 3두와 북어 10미였다.

—<보 기>—

- ㄱ. 조선시대 궁녀에게는 현물과 포화가 지급되었다.
- ㄴ. 삭료로 지급되는 현물의 양은 온공상이 반공상의 2배, 반공상이 반반공상의 2배였다.
- ㄷ. 반공상과 온방자를 삭료로 받는 궁녀가 매달 받는 북어는 45미였다.
- ㄹ. 매달 궁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삭료는 쌀 4두, 콩 1두 5승, 북어 13미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3. 정답 ④

예설

- ㄱ : (○)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조선시대 궁녀가 받는 보수에는 의전, 선반, 삭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의전은 봄, 가을에 궁녀에게 포화를 내려주는 것이고, 삭료는 매달 주는 봉급으로 곡식과 반찬거리 등의 현물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ㄴ : (×)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온공상은 쌀 7두 5승, 콩 6두 5승, 북어 2태 10미인 반면, 반공상은 쌀 5두 5승, 콩 3두 3승, 북어 1태 5미이므로, 북어는 온공상이 반공상의 2배가 되지만 쌀과 콩은 온공상이 반공상의 2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반공상 역시 반반공상의 2배가 아님을 마찬가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ㄷ : (○)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과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북어 1태의 절반이 북어 10미라고 하였으므로, 북어 1태는 20미에 해당한다. 반공상과 온방자를 삭료로 받는 궁녀는 매달 북어를 1태 5미 + 1태 = 2태 5미만큼 받게 된다. 이를 환산하면 45미에 해당한다.
- ㄹ : (○)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문장과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삭료는 공상과 방자로 나뉘어 있었는데, 공상은 모든 궁녀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인데 반해, 방자는 일부에게만 지급되었다. 따라서 매달 궁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삭료는 반반공상만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쌀 4두, 콩 1두 5승, 북어 13미였다.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5급(나) 7번]

甲국은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A ~ C)을 고려 중이다.

○ A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 원, 셋째는 30만 원, 넷째부터는 45만 원씩의 수당을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 B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재학 중인 경우에는 24세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20만 원, 셋째는 22만 원, 넷째부터는 25만 원씩의 수당을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 C안: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상한 연령 16세)까지만 해당 가정에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우선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3세 미만의 자녀 1명 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3세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8만 원, 셋째부터는 10만 원씩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중학생 자녀의 경우, 일률적으로 1명 당 8만 원씩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보 기>—

ㄱ. 18세 이하 자녀 3명만 있는 가정의 경우, 지급받는 월 수당액은 A안보다 B안을 적용할 때 더 많다.

ㄴ. A안을 적용할 때 자녀가 18세 이하 1명만 있는 가정은 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ㄷ. C안의 수당을 50 % 증액하더라도 중학생 자녀 2명(14세, 15세)만 있는 가정은 A안보다 C안을 적용할 때 더 적은 월 수당을 지급받는다.

ㄹ. C안을 적용할 때 한 자녀에 대해 지급되는 월 수당액은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문 4. 정답 ①

예설

ㄱ : (○) 18세 이하 자녀 3명만 있는 가정의 경우, A안을 적용하면 월 수당액으로 60(= 15 + 15 + 30)만 원을 지급받고 B안을 적용하면 월 수당액으로 62(= 20 + 20 + 22)만 원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지급받는 월 수당액은 A안보다 B안을 적용할 때 더 많다.

ㄴ : (×) A안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A안을 적용할 때 자녀가 18세 이하 1명만 있는 가정은 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ㄷ : (○) 중학생 자녀 2명(14세, 15세)만 있는 가정은 A안을 적용하면 30(= 15 +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수당을 50% 증액한 C안을 적용하면 24(= 12 + 12)만 원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C안의 수당을 50% 증액하더라도 중학생 자녀 2명(14세, 15세)만 있는 가정은 A안보다 C안을 적용할 때 더 적은 월 수당을 지급받는다.

ㄹ : (×) C안을 적용할 경우,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지급되는 월 수당액은 10만 원(3세 미만일 때) → 8만 원(3세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8만 원(중학생일 때)으로 변하고, 셋째부터는 월 수당액이 10만 원(3세 미만일 때) → 10만 원(3세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8만 원(중학생일 때)으로 변한다. 따라서 C안을 적용할 때 한 자녀에 대해 지급되는 월 수당액이 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수는 없다.

[빠른 풀이]

<보기 ㄴ>과 <보기 ㄹ>의 경우 둘 이상의 안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두 안을 비교해야 하는 <보기 ㄱ>과 <보기 ㄷ>보다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정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